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 표 동 중 경상남도 교육감

38년간을 교육계에 몸 담아온 표동중 경상남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의 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으로 경남의 교육을 주도해 왔다. 그의 일상은 바른 교육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을 갖추고 새천년을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방안을 고심하고 추진하는 일로 시작되고 끝난다. 경남 교육이 맑아졌다는 소리를 듣기까지의 표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 정책을 들어본다.

### ◀ 경상남도의 새천년 교육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은 새천년 21세기가 시작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후기 산업 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에 있어서도 금년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에도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감당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세기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성 함양과 창의성 계발을 지향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전 교육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과 수준별 수업을 적극 도입·확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 풍토 조성과 자율 장학 활동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건전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며, 토론문화와 학생중심의 교수-학습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금년들어 『푸른경남·희망교육 21』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성교육',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학교 경영의 자율화와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선진화와 복지증진'이라는 4개항의 교육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 평소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강조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특별한 까닭이 있는지요?

교육감 직을 수행한지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

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래에 우리 교육은 넓게 보면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활용된 점도 없지 않고, 또 작게는 슬로건이나 전시위주로 치달은 면이 없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다 근래에 와서는 체벌 금지, 과외금지 해제, 거기다 듣기도 민망한 교실붕괴와 같은 표현들이 마스크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이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여건을 일신하고 선생님이 사명감과 교육자적 자긍심을 가지고 교단에 서서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행·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특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일소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동시에 교단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이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남교육이 많이 맑아졌다는 소리가 들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백년지대계인 교육과 국가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교육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은, 시대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문명사적 변천과 그 궤를 같이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수렵과 사냥 기술에 능한 사람이 그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었기에 교육의 중심 내용은 마땅히 사냥과 수렵이었고, 유교적 기반 위에 성립된 조선왕조 시대의 교육 목표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

재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새천년의 고도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교육은 크게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의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민주주의적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면, 창의성 교육은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이 적어도 한 세대 앞을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과업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국가 경쟁사회에서 창의성은 곧 개인의 행복한 삶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개하고 계신 주요 정책과 사업이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한 교실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지름길이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이죠. 이를 위해 수업 잘하는 우수 교사를 우선 전보하는 등 우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별·특기별 우수 교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교장 책임 경영제'도 더욱 활성화하여 학교장에게 단위 학교의 수업 개선과 학교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실 수업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과 특기·적성 교육 역시 강화할 것입니다. 실천 위주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교육청이 인정도서로 개발한 '인성 교육용 읽기 자료(초·중·고 전 9권)'를 도내 전 학생에게 보급·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또 전문 강사 확보를 위한 인력 풀(pool)제를 도입,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수 강사 명단을 탑재하여 활용토록 할 것이며, 지역 교육청 주관 특기·적성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소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동·서 지역간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실



▲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말해 봅시다. (학생과의 대화)

시한 '한마음 교육' 역시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적 인성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는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교육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선생님들은 물론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정보화 소양을 신장하여 컴퓨터를 중심으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 현재 학생 건강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노력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는 물론, 학교급식, 먹는 물, 전염병 예방, 비만, 구강보건, 약물 오·남용 등에 관한 예방과 관리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보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여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고 건강하고 명량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외국의 한 초등학교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휴식 시간에 학생들을 한 명도 교실에 남기지 않고 운동장으로 내 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휴식 시간 만큼은 또 열심히 뛰어 놀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이 계속해서 약해진다는 것은 곧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의 체격은 향상되었는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 체육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 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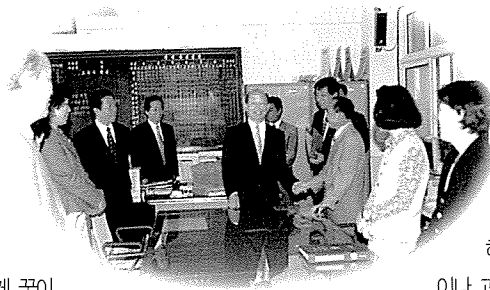
#### ◀ 도내 학생 건강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사업과 새천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 계획은?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신체검사, 즉 체질, 체격, 병리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 ◎ 마산고 졸업(1956)
- ◎ 경북대학교 사범대 수학교육과 졸업 (1958~1961)
- ◎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 취득(2000년1월)
- ◎ 남해 수산고 · 마산고 · 마산상고 · 진해 여고 교사(1962~1980)
- ◎ 아로 고등학교 교감(1980~1981)
- ◎ 경상남도 교육청 장학사 (1981~1988)
- ◎ 신반 종합고등학교 교장 (1988~1990)
- ◎ 경상남도 교육청 장학관 (1990~1992)
- ◎ 경상남도 사천 교육청 교육장 (1992~1995)
- ◎ 경상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1995~1997)
- ◎ 제11대, 12대 경상남도 교육감 (1997~현재)

받을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사업과 병행하여 바르지 못한 자세와 몸 에 맞지 않은 책·결상의 장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의 조 기발견과 교정을 위한 검사를 초 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학부모와의 대화)

#### ◀ 교육계에 몸담게 된 계기는?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 었습니다. 비교적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환경 이 좋지 못한 친구들을 도우면서 사는 법을 늘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이 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동경하게 했고,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망설임 없이 사범대학으로 진학 하게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생각해도 교직을 선택하길 잘 했다는 생 각이 듭니다.

#### ◀ 평생을 지켜오신 좌우명이나 교육자로서 지켜온 소신이 있다면?

'정도(正道)·정행(正行)', 즉 '바른 길을 따라 옳게 행동 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옳다고 생각되는 원칙이 정 해지면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다르고, 또 모든 일에 바르고 옳게 행동한다 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찍이 60년대 초반 사회가 혼란스럽던 시절에 교직에 첫 발을 내딛은 이 래, 지금까지 38년간 줄곧 바른 길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 려고 애써 왔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상당히 건강하신 편인데, 평소에 실천하고 계시 는 건강 관리법은?

(웃으며) 건강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별로 뚜렷이 내세를 위한 건강 관리법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실천하는 게 있다면 소식 다동(小食多 動)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 도입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편식 이나 과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는 테니스도 하고 등산도 자주 했는데, 요즘 은 그럴만한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고, 매년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 ◀ 끝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은?

교육은 정원사가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원 사는 그 나무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서 제때에 거름을 주 고 물을 주며, 가지를 자르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칭찬과 격려 그리고 때로는 질책 도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바꿀 것은 바꾸 고 고쳐서, 빠른 개혁보다는 수준 높은 교육개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사기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7